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 신 성 중
편집인 : 윤 명 식
편집국장 : 손 정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1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특별 새벽 기도로 열매 맺는 예수 잔치

기도하며 전도하자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 계획되었던 대로 잘 추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현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11월 1일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보람된 한 페이지를 장식함은 물론 초청되어진 사람이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할텐데 이 일은 우리가 철저히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 아니하시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잔치가 은혜 중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먹는다고 해도 소화기에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듯이 모든 계획되었던 일도 기도로 익히지 않으면 제대로 성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가운동본부에서는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계획되었던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월 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새벽 5시에 실시하는 특별 새벽 기도는 전에 실시하던 것과 같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의 자

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된다. 시간이 변경된 것을 유념하기 바라며 "기도하며 전도하자"는 주제와 함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필사의 각오로 집념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새벽기도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성도가 참여할 것을 예상하여 새벽 기도회의 장소를 본당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게 된다. 또한 한 기도회에 참여한 후에 직접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도 제공하게 된다.

새벽 예배에 온 교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주력 교구를 선정하였다. 26일에는 1, 7, 13, 19교구가, 27일에는 2, 8, 14, 20교구가, 28일에는 3, 9, 15, 21교구가, 29일에는 4, 10, 16, 22교구가, 30일에는 5, 11, 17교구, 대학부, 청년부가, 31일에는 6, 12, 18교구, 교회학교가 담당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새벽기도회마다 참여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특별새벽기도회

- 일시: 10월 26일(월)~31일(토)
- 새벽 5시
- 장소: 당회장 신성중 목사
- 장소: 본당

뱃지를 답시다

배가 운동 추진 계획 중 하나로 뱃지 달기 운동이 있다. 그동안 인쇄 과정의 착오로 연기되자 스티커를 오려서 붙이던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 뱃지가 완전 제작되어 나왔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 기간에 온 성도가 참여하기를 바라며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같이 타기, 구역별로 같이 오기, 전화로 깨워주기 등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다. 새벽을 깨우는 정성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바란다.

심정으로 뱃지를 달고 전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중헌프리즘

◎... "알아들었으면 어떤 하세요?" "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그리고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온다.

지난 11일(주일)로 끝난 부흥회 강사 겸 전을 목사의 확인 제스처의 일부이다. 어떤 성도는 이번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 중헌교회가 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적 복음 진리가 계승되는 확인

의 자리였다는 것이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는 그 동안 해 이해했던 우리들의 신앙 행태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매일 되풀이 되는 생활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나태해지고 주님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계속 영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되면할까 두렵다.

특유의 경장도 사

투리를 가미한 강단 언어메시지를 구사한 김선운 목사의 심도있는 예수 사랑의 깊은 진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변화와 깨침의 순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 독서의 계절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시를 읊며하고 문학 작품을 애독하는 일은 무척 즐겁고 성숙된 인간의 단면을 보는 느낌이다. 특별히 선자들이 성경을 읽으므로 인해 영

의 양식과 신앙의 진보를 체감하며, 탁월한 성경 지식으로 시원부종말론 같은 유사 기독교, 혹은 사이비 이단 집단에 현혹되는 일이 없게 된다.

훌륭한 문학 작품을 쓰려면 아가서를 읽어야, 영혼의 시를 쓰려면 성경을 읽어야, 생활의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서를 읽어야, 편지나 서간문을 잘 쓰려면 빌레몬서를 읽어야.

김창인 목사 노회 공로목사 추대, 제26대 장로 장립 및 취임 예배

김창인 원로목사가 지난 10월 13일 중헌교회에서 열린 추도노회에서 노회 공로목사로 추대되어 오는 10월 20일(화) 오후 7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추대식을 갖는다.

한편 지난 2월 공동의회에서

제26대 장로로 선출되어 소정의 교육과 교시를 치른 임봉남 집사, 김여순 집사, 이하영 집사, 이광섭 집사와 협동장로인 강형 장로의 장로 장립 및 취임식 예배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함께 드린다.

예수 사랑 큰 잔치 주력 교구 선정

11월 1일에 실시되는 예수 사랑 큰 잔치에 35,000명의 성도들이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인원수에 따라 배가운동본부에서는 성도들이 분산해서 각 예배마다 골고루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주력 교구를 선정하였는데, 추진 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주력 교구를 일부 변경하여 다시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미 광고된 교구에서는 혼돈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에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부득불 더 나은 선택으로 재조정하게 되었다. 2, 3, 4

부 예배시에는 다른 교구에서도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 자연발생적으로 예배실이 좁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 조정된 주력 교구를 보면 1부 예배는 1, 2, 3, 4교구가, 2부 예배는 5, 6교구가, 3부 예배는 7, 20교구가, 4부 예배는 8, 9, 21교구가, 5부 예배는 10, 13, 14교구가, 6부 예배는 11, 12, 17, 22교구가, 7부 예배는 15, 16, 18, 19교구가 담당하게 된다. 각 교구마다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초청되어진 사람이 편리한 시간에 초청하는 것은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될 것이다.

◆ 예수 사랑 큰 잔치 주력 교구

예배	주력교구	예배	주력교구
1부	1, 2, 3, 4교구	2부	5, 6교구
3부	7, 20교구	4부	8, 9, 21교구
5부	10, 13, 14교구	6부	11, 12, 17, 22교구
7부	15, 16, 18, 19교구		

전도지를 활용합시다

전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도 활동이 본격화 되어야 한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전도지다. 뿌린 만큼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한다.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종류의 전도지를 만들었다.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낚시 배늘에 좋은 미끼를 달기도 하지만 낚시 배늘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다 향기로운 미끼를 놓아야 한다. 전도지의 배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제작된 전도지가 잘 활용되어 전도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전도지는 예배가 있는 시간에는 본당 현관에서, 그 외의 시간에는 사무국에 오면 언제든지 필요한 분량만큼 가져갈 수 있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깨끗해진 나병환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마8:1~4)

사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복음서들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서울로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그 묘사도 달라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묘사한 다음 장부터 7장까지는 왕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이하에서는 능력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첫 번째 과정인 나병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나병과 죄

성경에 나병환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개하시는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웃사야 왕은 자신의 직분을 무시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천형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병은 대단히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깨끗한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죄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병과 죄는 뱀레야 뱀 수 없는 영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죄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병은 사람의 몸 속 깊숙히 들어가서 점차로 퍼져갑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몸을 썩게 만듭니다. 지저분한 냄새가 나며 몸의 신경을 죽이고 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웃과 완전히 고립되어야 합니다. 설사 죽더라도 장사적인 장례를 지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병의 특징은 죄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죄는 우리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며, 성도간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8:2)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 나병환자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

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표출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담는 보석상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땅에 묻어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능한 운동선수가 며칠 동안 연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땅에 묻어둔 채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 나병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8:3)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나병환자를

보시고 민방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마8:4)

예수님이 그 나병환자를 깨끗이 고치신 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않도록 경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는 일”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병은 그것을 고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죄의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나병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신 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

리들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에 맞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고’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참는 일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우리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 대회 조직

배가운동본부는 여기에 이름이 실린 성도들이 20일과 22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모이는 준비 기도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분과명	분과장	지도	장로	교역자	실무위원
추진위원장	윤명식				
기획	정하우	김해규	김차생 이병학 하대선 남선우 서동석 이종국 분과장 전원	분과 지도목사 전원 홍창민(서기)	기획실 김차철
교육양육	최상규	김창수	최대원 오정현 정운석 김종구 최무길 김재명 강은원	김용기 김희수 장봉생 윤삼중	강 협 최기홍 강봉수 이하영 박인건 박상준 김영수 김단용 이동명 오인근 안성연 김광호 신광철 김구형 민건식 엄숙현 김춘지 강동화 김용순 최미정 차경숙 최영희 이명자 김상순 새례부·새가족부 교사 전원
교구동원	손동원	최인근	22개 교구장 전원	성봉환 조운재 22개교 구지도 목사 여전도사	교구 간사 전원
청장년찬양	이 훈	김찬곤	노광현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이종석 윤성철	이병각 이종대 정광욱	정홍식 박찬섭 황의만 김환기 김경희 백죽심 조혜순 강동화
봉사	박치민	이조웅	김의철 강순용 김경칠 박인재 서일영 김재균	신표근 김태준 김수상	최명환 김여순 채수경 전홍열 허명호 이교영 김동삼 김종성 추병창 변태수 차기풍 한종구 한경선 최만수 마숙전 김규중 박창식 이용열 손동기 김봉중 김일교 윤선한 최진성 이상실 우순성 이근자 김재숙 한수미 차량관리부전원 의료봉사단 전원
홍보	손경수	김양홍	김영삼 우기전 윤인현 박승준 엄필성 강모용 조인재	김광국 조동원	이승철 김운섭 박형주
진행	김은호	윤용규	이태규 오태희 김광진 마성락 오진국 박관영 문홍구 박영식	이홍성 한용관 임성환	김인관 최기홍 이하영 최운덕 최만수 오석부 한경선 이부성 서동석 이인상 안병호 엄균영 이석영 이인영 백죽심 엄숙현 최수애 김계희 왕전숙 유재선 유은희 당일 헌금위원 전원
교회학교	송기홍	김성운	조선근 정광호 강은원 최성현 윤광일	장경철 교육전도사 전원	33개 교회학교 남녀 부감 전원
재정	김영개		안익태 송환창 김영길 김광남		

1.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란 악습(惡習)을 철폐하고 교회내의 제반 사항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왕하18:1~8)과 요시아의 종교개혁(왕하23:4~20)이 나온다. 역사적으로는 16세기에 성경 말씀을 자원으로 하여 교회를 부흥시킴으로써 새롭게 한 것을 가리킨다.

교회사학자 샤프(Schaff)는 종교개혁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었다. "종교개혁이란 기독교에 대한 소개 다음으로 설명해야 할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이다. 그것은 중세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근대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것은 종교에서 시작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이후의 모든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신교로 하여금 근대 문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종교개혁을 보는 현대인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

2. 종교개혁과 루터

루터는 종교개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루터를 떠난 종교개혁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겠다. 루터의 영적인 체험은 종교개혁의 축조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처음부터 세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궁극적 관심이 교회체제나 교리문제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루터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 기도, 금식, 고행을 하며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열

▶ 증현논단 ◀

종교개혁과 현대인의 신앙



이종대 목사(제4교구·중등2부 지도)

심히 했다. 하루에도 20번 이상 한 적도 있어서 신부가 귀찮아할 정도였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28계단을 오르는 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던 루터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

루터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적인 권위나 권세에서 떠나 오직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 했다. 그는 구약성경을 읽어내려 가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말씀의 선포가 없는 성례는 미신행위라고 외쳤던 것이다.

루터는 사제의 중재나 철학적인 전제에 구애되지 않고 성경을 순수하게 집합으로써 발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살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3. 현대인의 신앙

현대인 인본주의가 기승을 부

리는 세대이다. 거짓이 진리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킨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인본주의와 죄악으로 치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신앙도 변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줄 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루터가 자신의 죄문제로 고민한 것처럼 현대에도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신의 죄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보고자 고민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것만으로 기뻐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죄를 이기는 생활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

혜에 감격하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아 중심으로 사는가? 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가? 시기 질투는 왜 떠나보내지 못하는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언제나 그칠것인가? 하나님보다 어찌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다 죄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수치 당하시고,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나의 이런 죄들 때문이 아니었는가? 잘 안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냥 떠내려갈 것인가? 죄로부터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지 않은가? 목표가 높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버릴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자마다 성결(성화)에 몸부림 친다고 하셨거늘,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칭의에 묻어버리는 것인가?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성화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화를 위해서,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성화는 더욱 늦어지고 있다.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간 것처럼 현대의 신앙인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기만 하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해석대로'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무데나 가서 성경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교회는 단지 성경지식을 얻는 곳은 아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각자가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되어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것이 성경적이다. 선교회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아무 교회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이름만 선교회인 아무 단체에나 가서 성경공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보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현대의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죄문제로 고민하고, 죄로부터의 승리, 성화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성경 해석에 의한 성경공부에 힘쓰고, 교회에 소속되어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한다.

전환자·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은혜중에 진행되기 위하여

- 예수 사랑 큰 잔치 행동 지침 -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만남의 장소 활용

먼저 각 교구별로 초청자는 초청 대상자와 교회에서 만남 약속을 한 후에는 본당 앞뜰에 마련된 만남의 장소를 활용해야 한다. 거기에서 할 일은 초청 카드에 이름과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작성하는 것이다.

2. 입장과 헌금

그 후에 본당 로비로 입장을 하며 안내원들로부터 환영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 스티커를 붙일 때 할 일은 이미 기록한 초청 카드를 절취하여 카드함에 넣는 것이다. 입장할 때는 주보 및 여러 가지 교회 홍보 팸플렛

내 위원의 안내를 따라 좌석에 앉게 된다.

3. 결신 카드 작성

예배 시간 중에 목사님의 설교 후에 결단의 시간이 있게 된다. 이때 결신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결신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신하는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작성된 카드는 이미 배치되어 있는 안내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4. 결신자는 갈릴리홀로

예배가 끝나면 퇴장하게 되는데 퇴장할 때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문을 개방한다. 단 결신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성도들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안내위원 및 초청자는 결신자들

을 받게 된다. 입장할 때 헌금은 입구에 예비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도록 하며 입장한 후에는 안

을 인도하여 갈릴리홀로 인도한다. 거기에서는 등록을 하게 되며 그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제공된다.

5. 교제의 떡

그 후에 초청자는 새로 온 사람들과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고 식당이나 기타 장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본당 밖에서는 찬양팀의 찬양이 있게 되며 이미 전시되어 있는 교회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6. 해당 교구와의 연락

사후 조치로 이 날 결신한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해당 교구에 배치되며 해당 교구에서는 특별 교재를 사용하여 양육하게 된다. 동시에 새가족부에 소속시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당일에 결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해당 교구에서는 중앙 컴퓨터에 입력하여 계속 관리하게 된다.

7. 새신자 환영회

사후 조치 중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은 11월 15일에 새신자 환영회를 갖는 것이다. 이때 해당 교구의 구역장과 더불어 참석하게 되는데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92 예수 사랑 큰 잔치'는 일단락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도회 전도 활동 본격 개시

22개 교구 154개 전도회 지회가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풍성하게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각 전도회별로 기도로 준비하며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기로 한 것이다.

각 전도회는 전도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

가 축호전도를 실시하며 새로 제작된 전도지나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한 홍보물을 가지고 공원이거나 전철역 병원 등지에서 노방전도를 전개하게 된다. 교구내 50세 이상 남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전화를 통한 전도도 한다. 또한 믿음이 약한 회원 가정을 방문하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의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현금은 현금함에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실시되는 당일에는 본당 좌우측 문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로비쪽의 현관문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유한다. 그 이유는 사망으로 들어올 경우에 새신자를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현관쪽으로 출입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아울러 집회 도중에는 현금을 받는 시간이 따로 없다. 대신 들어올 때 로비에 미리 비치해둔 현금함에 현금을 하면 된다. 자질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은 미리 숙지하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기교육원 자모회 봉사관 건축현금

장애아동 조기교육원의 자모들이 봉사관 건축현금을 하였다. 봉사관이 완공되면 조기교육원이 그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에 감사하다며 현금을 한 것이다.

만남의 장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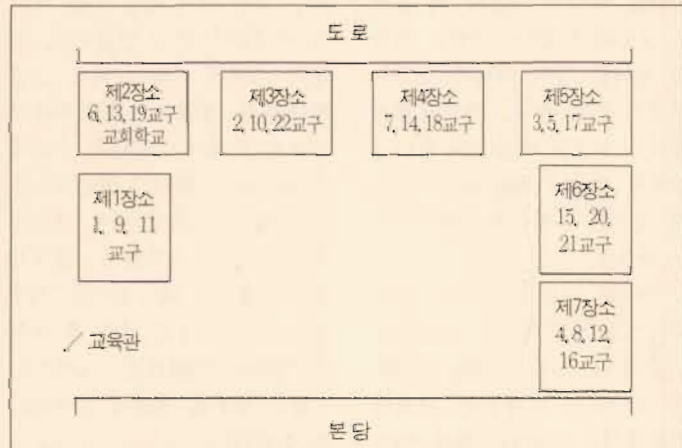
예수 사랑 큰 잔치 당일에 초청되어 온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연구하던 끝에 본당 앞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곳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로 하였다. 만남의 장소에서 하는 일은 초청자를 만나고 카드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만남의 장소는 교구마다 그 번

이제 '92 예수 사랑 큰 잔치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홍보분과 지도를 맡은 나로서는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같이 막연한 때도 있었다. 협조하는 사

호를 지정하였다. 1호 텐트는 1, 9, 11교구가, 2호 텐트는 6, 13, 19교구, 교회학교가, 3호 텐트는 2, 10, 22교구가, 4호 텐트는 7, 14, 18교구가, 5호 텐트는 3, 5, 17교구가, 6호 텐트는 15, 20, 21교구가, 7호 텐트는 4, 8, 12, 16교구가 사용하게 된다.

만남의 장소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함으로 당일에 일어날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대되는 천국 잔치

김양흠 목사(15교구·배기운동본부 홍보분과 지도)

람이 없을 때는 마냥 힘들어 했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힘이 빠졌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곽은 뚜렷해지고 성도들의 관심은 고조되어지고 교구를 맡은 목사님들마다 교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나로 하여금 일하는 데 힘을 더하여준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오는 사람을 기다리며 시간을 소비할 여유가 없다. 산울로, 들판으로 골목으로, 거리로 나가서 누구라도 잡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부흥회를 통해서 무장되어진 우리의 영혼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되고 가슴에는 '예수 사랑'을 달고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나의 체면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그 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온 성도들이 11월 1일의 복된 잔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확신과 힘이 생긴다.

그 날에 몰려오는 수 많은 사

람들, 예수님이 미리 정해 두셨으나 아직까지 기회가 되지 않아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나긴 암흑 속의 여행을 마치고 주의 전을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 나도 여기에 동참했구나 하는 생각 속에 큰 힘이 솟아난다. 시간마다 외치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말씀도 마음속에 큰 힘으로 자리를 굳힌다.

지금 나는 그 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모든 잔치를 은혜 중에 마치고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진다. "이 잔치는 내가 기뻐하는 잔치였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낙심했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되고 지쳤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된다.

기대되어지는 천국 잔치! 나를 위함도 아니요, 나의 상급을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신을 위해서 자신을 모두 던져버린 나의 마음은 일을 하는 중에도 능력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날의 기쁨을 생각한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차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잔치, 감사가 벌써 쏟아져 나온다. 그 날에 온 성도가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 구역예배 ●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전도특별공과 (1992. 10. 22)

성도의 축호전도

- 본문 : 마태복음 10장 11절~15절 · 찬송 : 268장, 259장
- 요절 :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마10:12)

축호전도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축호전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것이며, 전도의 방법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각 구역마다 축호전도에 힘쓰시다.

1. "합당한 자를 찾으라"

본문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 내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동네나 들어가서 가정마다 복음을 전하는 중 그 가운데서 합당하다고 발견될 때 비로소 전도 대상으로 확정지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다툼이나 변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도하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면 그를 상대로 하여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선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2.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본문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였습니다. 평안은 평강, 평화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부터 가지기 원하던 이상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대상자

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안 식구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게 합니다. 이것은 현명하고도 은혜스러운 방법이며 쉽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3.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합당한 가정을 만나서 그 가정을 위하여 빌어준 평안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면 성도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가정이 빌어준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축복을 빌어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열심히 전해주고 빌어주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입을 빌려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합당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빌어준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면 그 평안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 결론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평안하기를 빌어주어야 합니다. 축호전도는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또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이 전도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구역을 배가시켜주시라.

◆ 적용 및 기도제목

1. 전도의 효과적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과 평안을 빌어주소다. 또 모르는 가정이라도 같이 협력하여 축호전도에 힘쓰시라.
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한 사람이 10명 이상 초청해줄 수 있도록 전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